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2017. May / Vol.147

04 Forum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08 Business Up
스마트워크 시대,
혁신 성공을 위해 유연하게 일하라!

34 IBKeri Economic Report
한국 경제, 살아나는가?

CEO Story

(주)현성바이탈 김범준 회장

연구 개발로 건강 수명 100세의 꿈을 실현한다!



(주)현성바이탈의 복합수소수기 '지바쿠아(Jivaqua)'. 수소는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IBK 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7 May + Vol.147

01 시론 | 중소기업은 성장을 멈추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02 Issue | 이달의 경제 키워드 10

04 Forum |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제56회 희망중소기업포럼



Business Up

스마트워크 시대,
혁신 성공을 위해 유연하게 일하라!

10 Theme
남보다 먼저 스마트하게 일하라!

12 Strategy
인식의 변화가 성과를 높인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스마트워크

16 Practice
사고력 4.0 시대, 과감히 뒤집어 질문하라!

Management Up

18 CEO Story
(주)현성바이탈 김범준 회장
연구 개발로 건강 수명 100세의 꿈을 실현한다!

24 Consulting
기업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경영 이슈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26 Tax Accounting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은 알고 가자

28 HRM/HRD
근로자 퇴직 후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

Economy Up

30 IBKeri Economic Report ①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34 IBKeri Economic Report ②
한국 경제, 살아나는가?

38 Corporate Ecosystem Series
체계적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KT&울랄라랩

CEO Up

42 Classics&Philosophy
그럼에도 사랑하라, 〈오만과 편견〉

44 Trend Study
회의, 모바일을 입다

46 Biz Skills
일의 주인이 되어야 일이 즐겁다

48 Biz&Culture ① 봄날에 좋은 전시

49 Biz&Culture ② 나른한 오후, 두뇌를 깨우는 팝

50 Events 이달의 행사·전시

52 Thinking

발행일 2017년 5월 1일(통권 147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도진 **편집인** 고대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196 **Fax** 02-729-6605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주)알에이치코리아(02-6443-8889) **인쇄소** 알에이치홀딩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중소기업은 성장을 멈추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

성공한 중소기업 CEO에게는 남다른 경영 철학이 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기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장비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주)K사의 CEO도 마찬가지다. 그의 경영 철학은 '중소기업은 성장을 멈추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경영에 임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성장 시대에는 대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도 함께 커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는 그러한 '덩달아' 성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필수 조건이다. 성장하기 위해, 즉 죽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과 패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도 바꿔야 한다. 오늘날 제조업은 과거처럼 제품 하나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융복합 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한다. 이를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서비타이제이션)'라고도 한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 롤스로이스의 항공 엔진 '토털케어 서비스'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항공 엔진을 제조하던 이 회사는 수익성 하락과 시장점유율 극복(2002년 기준 민간 항공 엔진 부문 M/S는 롤스로이스가 23%, GE가 65%)을 위해 모든 것을 혁신했다. 엔진에 센서를 내장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했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조치를 취해주는 고객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2016년 기준 롤스로이스는 GE를 제치고 민간 항공 엔진 시장 M/S 1위(55%)를 달성 중이며, 매출의 절반가량을 서비스 부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저성장 돌파구를 찾은 또 다른 예는 일본의 위스키 산업이다. 맥주보다 저렴한 하이볼(위스키에 소다수를 타서 8온스짜리 텀블러에 담아내는 음료)은 침체되었던 일본 위스키 산업을 회생의 길로 이끌었다.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 석상에서나 어울리던 독한 위스키를 대중이 손쉽게 즐기도록 혁신하자 생산과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본 위스키 산업은 20년 침체기에서 벗어나 지금은 해마다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곳곳에 불고 있는 리쇼어링(국외로 생산 시설을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도 그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선진국에는 일자리 증가, 세수 확대 등이 기대되지만 오프쇼어링(역외 생산)을 기반으로 삼았던 개발도상국에는 큰 위기다.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멀어질 경우 향후 3분의 2 수준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아이폰 제조기업인 대만의 폭스콘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뒤 11만 개였던 일자리가 5만 개로 줄었다. 게다가 리쇼어링이 가속화될수록 개발도상국들은 글로벌 기업의 선진 기술 이전 기회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되느냐, 팔로어가 되느냐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중소기업은 성장을 멈추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주)K사 CEO의 경영 철학은 몇 번이고 되새겨도 가슴을 울리는 시대정신으로 다가온다.

이달의 경제 키워드 10

북핵 리스크, 기준금리 동결,
소비자물가지수 최고 기록,
미세먼지 심화 등 곳곳에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 변수들이
도사리는 가운데 '장미대선'이
치러지는 5월이다.
한국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❶ 한은, 10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1.25%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연 1.5%에서 1.25%로 기준금리를 내린 뒤 10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 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불확실한 국내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❷ 한은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



2.5%→2.6%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p 상향 조정했다. 한은이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3년 만이다. IMF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p 오른 2.7%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과 정보기술(IT) 대기업 투자가 전망치 수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경제가 진짜 살아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7만 6,250원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금 1돈(3.75g)당 17만 6,250원(KRX, 4월 12일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낮지만, 금·엔화 등 안전자산 선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436억 달러

지난 4일, 미국 상무부는 2월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9.6% 감소한 43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5년 만에 최대치 적자를 기록한 1월 이후 한 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은 전월보다 0.2% 늘어난 1,929억 달러, 수입은 전월보다 1.8% 줄어든 2,364억 달러였다. 대(對)중 적자가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한 때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❻ 커지는 북핵 리스크에 금값 상승



❼ 美 2월 무역수지 적자 급감

❸ 물가 62개월 만에 최고



2.2%↑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지난 2월보다 상승률이 0.3%p 커진 것이다. 이는 2012년 6월(2.2%) 이후 체감물가 상승률이 62개월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은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고, 식료품과 석유류 제품 가격의 오름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시름이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❹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0(zero)

미국 재무부는 14일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 가운데 어떤 국가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대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주요 대미 수출국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3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지정됐으며, 환율 보고서는 오는 10월에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❺ 미세먼지 피해 심각



130위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9일이나 '나쁨(일평균 81~150㎍/㎥)'으로 나타났다. 3일 중 하루꼴로 1급 발암물질을 마신 셈이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은 세계 136개국 중 19위를 차지했으나, 세부 지표인 초미세먼지지표는 13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00㎢

지난 4월 1일 중국 국무원은 허베이 성 바오딩시의 3개 현(슝·룽청·안신)을 묶어 국가급 신구를 만들겠다는 슝안신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상하이 푸둥신구나 광둥성 선전신구에 이은 '제3의 경제특구'로 중장기적으로 2,0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슝안신구가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개발 계획 발표 직후 인근 부동산 값이 두 배 이상 뛰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연내 1~2조 달러↓

연준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만기 도래 채권의 재투자를 중단할 전망이어서 월가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준이 보유채권 재투자를 중단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성장세와 2018년 새롭게 들어설 연준 의장의 리더십에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투자은행은 연준 자산 규모가 지금보다 1~2조 달러 줄어든 2조 5,000억~3조 5,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91일

지난 4월 11일 세월호가 참사 1,091일 만에 목포 신항 부두 위로 올라왔다. 국제 입찰을 통해 인양업체로 선정된 중국의 상하이 샐비지는 인양 시작 613일 만에 세월호를 뭍으로 들어 올렸다. 총 476명 승선자 중 172명 구조, 295명의 사망자, 9명의 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과 사회적 트라우마를 안겼다. 이제는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❽ 중국 슝안신구 개발 발표



❾ 美 연준 보유자산 재투자 중단 시사



❿ 세월호 인양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제56회 희망중소기업포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모든 것이 뒤바뀌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하는가?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의 속도

2017년 3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56회 희망중소기업포럼이 열렸다. 이날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 이슈와 대응'. 최근 한국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답게 방청석까지 인파가 들어찼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키워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과 성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유망·강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해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BK기업은행의 역할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슈'가 아닌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AI), 자동화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올라타려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IBK기업은행은 스마트공장 구축, 첨단 기술 보유 기업 등에 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중소기업이 혼자의 힘으로는 넘기 어려운 높은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한국도 병목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디지털 이전 시대의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뒤이어 글로벌기업가정신개발연구(GEM)의 공동 설립자인 세계적인 석학 에르코 아우티오(Erkko Autio)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의 기조연설로 본행사의 막이 올랐다.





좌_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제56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IBK 학술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우_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제56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혁신의 방식은 제품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산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해야 합니다. 서비스와 가치가 디지털 플랫폼하에서 어떻게 창출되고 전달되는지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는 먼저 디지털 산업 환경과 인터넷의 역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경영 환경 분석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조사한 기업가 생태계 지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한국은 137개국 가운데 27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가 생태계는 경쟁(Competition), 기회(Opportunity), 기업가 정신에 대한 문화적 지원(Culture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열정(High-growth Aspirations),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등의 병목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회인가 위기인가?

포럼의 백미인 주제 발표와 토론이 시작되었다. 먼저 박광태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이 연단에 섰다. 그는 중소기업학회에서 선정한 7개 범주, 24개의 이슈를 발표했다. 그 이슈는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앞에 서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대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반가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과 정보는 데이터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자유롭게 취급(IoT)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빅데이터)하는 데 이용됩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고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AI)으로 예상됩니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도 모두 자동화될 것(로봇)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중소기업의 대응은 미약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93.7%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 답을 제시하기 위해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사회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고대진 • IBK경제연구소장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어느 중소기업의 사례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48%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 회사가 겪은 AI 인력난은 우리 모두에게 닥친 문제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은퇴자를 영입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나서 기업의 연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고려해야 한다.

김용진 • 서강대 교수

4차 산업혁명은 온디맨드 서비스로 기업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유의 갑을관계, 상하관계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도 심각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한도전 특구'와 같은 규제 프리 존을 제안한다. 기업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중국만 보더라도 기업은 정보 보호에 폐쇄적이기보다 협력을 통해 일한다. 기업도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윤성혁 • ST Unitas 대표이사

얼마 전 미국 대형 펀드가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그들은 5~10년 후를 내다보고 각 분야 유망 기업에 투자를 제안하고 있었다. 미국은 물론,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에도 대비하고 있다. 그들에 비추어 우리 중소기업은 어떤가, 하는 위기감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규제도 심각하고, 인재도 부족하며, 그들을 위한 교육체계도 부족하다. IT 강국을 만든 경험을 살려 아시아 인재를 모아야 한다.

한국 산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4차 산업혁명을 다룬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제56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각 분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제56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주현 ● 산업연구원 부원장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성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우리나라처럼 개방화된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산업 현장은 물론,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 우선 한국적 특성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독일은 자동차, 기계 분야에 특화된 4차 산업혁명을 시작했다. 미국은 로봇과 의료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에게는 생존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남의 일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은 승자 독식주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이처럼 불합리한 구조를 더 고착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공동 구매 재고 관리, 판매망 관리 등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고민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해야 한다.

장종회 ● 매일경제신문 중소기업부장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위기일 수도 있다. 1970년대 추진한 공장 자동화도 따라오지 못한 기업이 적지 않다. 기업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Online to Offline'에 대한 인식도 넓어져야 한다. 오프라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정보로 생성하는 형태다. 그러나 최근 O2O 기업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병근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여러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좋은 대안은 중소기업 육성이다.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벤처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지원, 한국형 히든 챔피언 등은 모두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다. 정부도 가장 큰 문제가 규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많은 점이 개선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 철폐 사항이 많으므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공장 운동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IBK

editor_ 강한기
photo_ 강건호 pious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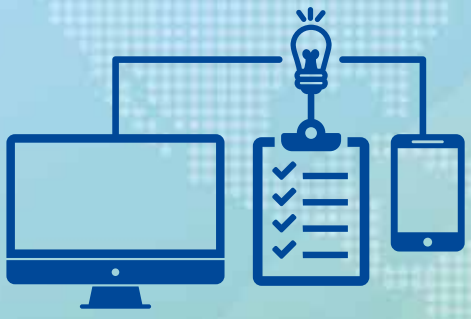


스마트워크 시대, 혁신 성공을 위해 유연하게 일하라!

Part 1.
남보다 먼저 스마트하게 일하라!

Part 2.
인식의 변화가 성과를 높인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스마트워크

Part 3.
사고력 4.0 시대, 과감히 뒤집어 질문하라!



스마트워크



일·가정 양립 정책



모바일오피스

+



재택 근무



유연근무제



스마트오피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결과'(2017.2)

스마트워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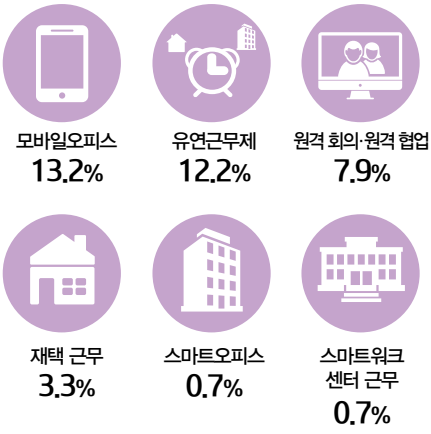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유형에 따라 모바일 근무, 재택 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유연 근무(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선택근무제 같은 유연근무제는 기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이구동성으로 현실은 이상과는 다르다고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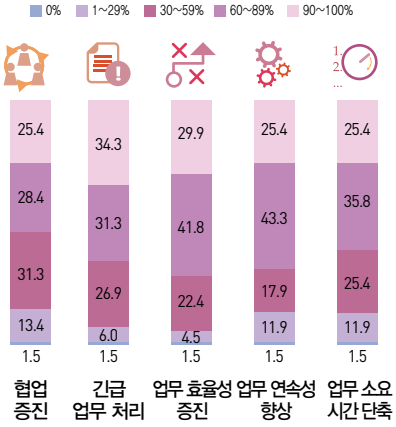
기업

스마트워크 유형별 운영률



운용 효과 있음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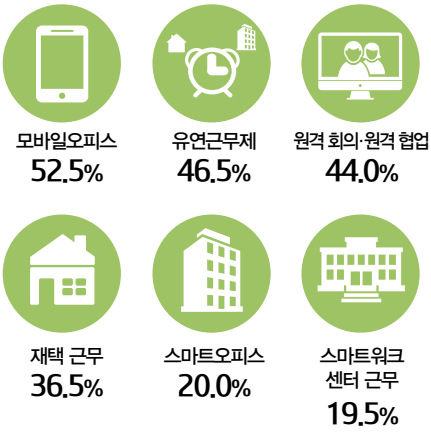
스마트워크 운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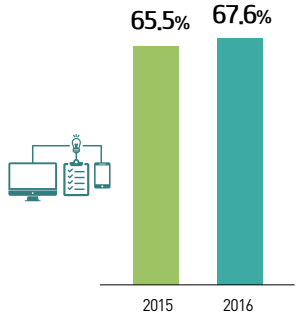
주 : 5인 이상 민간 사업체 조사 기준 **단위** :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결과'(2017.2)

개인

스마트워크 유형별 이용률



스마트워크 이용자 만족도



주 : 스마트워크 이용자 조사 기준 **단위** :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결과'(2017.2)

10
중소기업
CEO REPORT

남보다 먼저 스마트하게 일하라!

스마트워크의 기업 인지도는 90%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이를 제도화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앞으로 스마트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은 스마트화 시대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두 달 뒤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바둑 대국에서 패한 이후,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구조는 물론 기업의 생산·유통 방식과 개인의 삶에 대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스마트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가솔린 자동차에 사용하는 2만여 개의 부품 가운데 1만 개는 쓸모없어지고, 관련 하방 산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 또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클라우드 소싱으로 어렵지 않게 대형 제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은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어 종국에는 존망 위기에 내몰리기까지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스마트화'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보면 제품, 서비스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는 고객이 기존과는 차별화되어 더 똑똑해진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766시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113시간으로 압도적인 수준이다. 창의성과 효율성이 없는 업무 형태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OECD 주요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

1위	멕시코	2,246
2위	한국	2,113
3위	그리스	2,042
4위	칠레	1,988
5위	러시아	1,978
6위	폴란드	1,963
7위	라트비아	1,903
8위	아이슬란드	1,880
9위	포르투갈	1,868
10위	이스라엘	1,858
⋮		
13위	미국	1,790
⋮		
19위	일본	1,719
⋮		
33위	노르웨이	1,424
34위	네덜란드	1,419
35위	독일	1,371
OECD	평균	1,766

주 : 2015년 기준 자료 : OECD

업무 효율 높이는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편리하고 똑똑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스마트워크는 재택 근무, 유연 근무, 시차출근제 등과 같은 근무 방식과 모바일오피스·스마트오피스·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우리 기

업들 사이에서도 점차 보급되고 있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의 스마트워크 인지도는 89.1% 로, 전년 대비 18%p 크게 높아졌다. 우리 기업의 스마트워크 유형은 모바일오피스(13.2%)가 선도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원격 회의·원격 협업 등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 이용자들 역시 모바일오피스, 유연근무제, 원격 회의·원격 협업 순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재택 근무 등 기타 유형에 대해서도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노동인구가 주 1회 이상 재택 근무를 하는 비율을 10%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토요타가 전 직원의 3분의 1인 2만 5,000명에 대해 일주일에 2시간만 출근하는 주 5일 재택 근무를 전격 시행하고 있으며, 후지쯔는 얼마 전 본사 전 직원이 ICT를 활용해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업무 방식 도입에 대한 부담감(61.2%), 인프라 구축 등 예산 문제(56.7%), 근무자 관리의 어려움(30.6%) 등을 이유로 스마트워크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워크 도입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맞벌이 가구가 43.9%(2015)인 우리 상황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자발적 변화의 필요성

향후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회에서 스마트워크의 중요성을 고려해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최신 ICT 기술에 기초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개발·보급, 스마트워크 우수 사례 발굴, 효과 분석, 도입에 필요한 ICT 환경 구축과 제도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감과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에 공통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ICT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업무 방식과 문화가 자발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맞는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정착되어 우리 미래 세대는 업무 만족도는 물론 여유로운 시간 활용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하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IBK



writer_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
고려대 법학과를 거쳐 미국 조지 워싱턴대 정보통신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THE WORLD BANK(세계은행) 고위 ICT 정책 전문관을 역임했다.

인식의 변화가 성과를 높인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스마트워크

유연근무제 등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워크에 대해 기업이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 인력난을 이야기하기 전,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의 우주선 사옥이 지난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 글로벌 기업들은 때로는 일하고 때로는 쉬어가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중되는 인력난과 스마트워크

생동감이 가득 느껴지는 화창한 날씨에도 경제 사정이 마냥 좋지는 않다. 올 경제 성장 전망은 2.6% 수준이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 사드(THAAD) 문제, 북핵 문제 등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내수와 수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커져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 역시 쉽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체질 개선 요구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기업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물적 자본인 투자와 인적 자본인 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젊은 인재를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활기를 띠었고, 시대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반대로 구직자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취업 상담을 하면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중소기업은 진지하게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에는 급여 등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중소기업은 시설이 노후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할 것이라는 일종의 선입견이 깔려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

하기 위해서라도 시대적 변화에 맞춘 대응과 유인 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일하는 새로운 방식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워크는 유형에 따라 모바일 근무, 재택 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유연 근무(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등)로 나눌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6년 스마트워크 실태조사'를 보면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지도나 활용에 대한 만족도, 효과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는 71.5%, 회사 관리자의 인지도는 89.1%이며, 이용자 만족도도 67.6점으로 준수하다. 더구나 스마트워크 운영 관리자의 98.5%가 스마트워크 운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은 매우 적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대적 변화에 맞춘 대응과 유인 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시차출퇴근제가 12.7%, 시간제(근로시간 단축)가 11.3%,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9.2%, 재택 근무가 3.0%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3~12.7% 수준으로 유럽·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 부문과 비교해도 2016년 인사혁신처(72.3%), 행정자치부(64.6%), 교육부(63.7%), 국민안전처(56.2%), 문화체육관광부(54.1%) 등의 주요 부처별 유연 근무 이용률과 큰 차이가 있으며, 중앙 부처 전체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률 국제 비교

구분	한국[1]	유럽[2]	미국[3]	일본[4]	네덜란드[5]
시간제	11.3%	69.0%	36.0%	–	39.1%
시차출퇴근제	12.7%	66.0%	81.0%	–	–
탄력근무제	9.2%	–	–	52.8%	–
재택 근무	3.0%	–	38.0%	11.5%	29.6%

주 1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5) **주 2 :** Eurofound, European Company Survey(2013)
주 3 : 전미 고용주 조사(2014) **주 4 :** 일본 후생노동성, 취업 조건 종합 조사(2014) **주 5 :** OECD(2014), 네덜란드 통계청(2012)
자료 : 고용노동부(2016)

이용률(22.0%)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스마트워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률은 미비하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대면 중심 직장 문화(사내 눈치), 비용 부담 증가, 직무 부적합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나 경영자 모두 스마트워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직원들의 경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개념을 퇴근 이후에도 업무가 연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스마트워크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공간과 시간에 일할 수 있어 일의 효율과 능률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개념이 근무시간의 단축, 일 성과의 저하, 직원 복지 향상에 대한 비용 증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워크야말로 직장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장기근속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다.

스마트워크의 제도적 지원 확대 중

스마트워크의 도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이나 설비에 따른 비용, 도입 적응 기간 동안의 생산성 감소 등으로 인한 잠재 비용은 단기적으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기업이 스마트워크 도입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재택·원격·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각종 유연근무 제도를 올해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주당 10만 원의 간접 노무비(연간 최대 520만 원)를 지원한다. 또 재택·원격 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에 기업당 설비·장비 구축 비용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근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으로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간접 노무비로는 1인당 월 20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 이와 동시에 대체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까지 제공한다. 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워크 상담 단일 창구 등을 확대·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마트워크에 관한 정부 지원

1.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확대 시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당 주당 10만 원의 간접 노무비(연간 최대 520만 원) 지원
2. **재택·원격 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
   기업당 설비·장비 구축 비용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 지원
3. **시간선택근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간접 노무비 1인당 월 20만 원 각각 지원 및 대체 인력 고용 지원



2015년 행정자치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스마트워크
혁신 부문 최우수 사례로 꼽힌
한국동서발전의 스마트오피스.

작은 변화가 성과로 이어진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비용에 민감하며 변화에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크를 비용 대비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성과를 위한 투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상에서 안정성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스마트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신뢰의 문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경영자는 근로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믿어야 하고, 근로자는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 속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은 복리 후생이나 근로 환경에 관심이 매우 크다. 스마트워크는 무엇보다 이러한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스마트하게 일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다. 또 일의 효율성에서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일자리 확대, 육아 등 일·가정 양립, 경력 단절 여성, 육아 병행 근로자 등의 문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그 변화가 스마트워크의 도입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뜻하지 않은 작은 변화가 기업 분위기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며, 생산성과 성과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워크의 검증된 효과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변화를 통해 도약을 꿈꾸는 모든 중소기업들에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BK



writer_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방송통신융합정책 등을 연구 중이다.

사고력 4.0 시대, 과감히 뒤집어 질문하라!

일본 편의점 5개 사는 2025년까지 일본 내 모든 점포에 무인 계산대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 많은 일자리는 기계와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아이디어는 인간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해 불능 신입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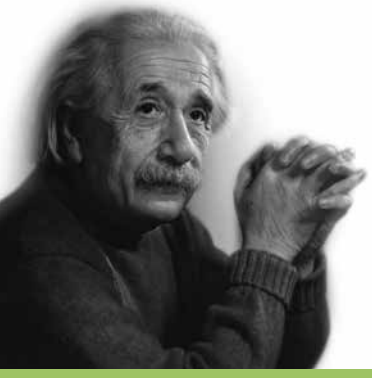
인사 담당 임원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간다. 입사 원서 잉크도 채 마르기 전 힘들게 뽑은 신입 사원이 하나둘 회사를 등진다. 더 큰 고민은, 이들이 직장을 떠나는 까닭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봉도, 업무량도, 출퇴근 교통도 아니다. 딱히 이유를 모르니 더욱 고통스럽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마주한 아내에게 지나가는 말로 고충을 토로했다. 아내는 위로 대신 심드렁한 표정으로 되레 물어온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왜 있대?"

예기치 못한 아내의 질문에 굳었던 임원의 얼굴에 희색이 돈다. 큰 충격파가 임원의 머릿속을 뒤흔든 게 분명하다. 뭔가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 신호다.

"문제의 해결책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 동일한 이해력 수준에선 절대 나오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뒤집은 의문에서 답을 찾다!

다음 날 임원은 몇 년째 묵묵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했다. 입사 동료 절반이 6개월도 안 돼 회사를 떠났음에도 자신들이 남아 있는 건 입사 초기의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한 덕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른 새벽 스마트폰 벨 소리에 눈을 뜨면 직장에 가야 한다는 중압감이 마구 몰려온다. 일요일 저녁에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이른다.

신입 초기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소화불량, 탈모 등을 야기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직장 스트레스를 입사 초기부터 잘 이겨내고

새로운 조직과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건 같은 부서 상사나 선배와의 원활한 소통 덕분이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은 부서별로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었다. 부서 내 입사 선배는 후배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 사항을 파악해 조언함으로써 신입이 직장이란 낯선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1년 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신입 사원의 6개월 이내 퇴직률이 과거의 3분의 1로 떨어진 것이다. 임원은 조기 퇴직 신입 사원 대신 현재 회사에 남아 있는 사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조기 퇴직을 줄일 솔로몬의 묘안을 찾았다.

창의적 인간의 특징

도무지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럼 확 뒤집어 질문(의문)을 새롭게 던져보라. 창의력 있는 사람이라 칭송받는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에 늘 뒤집어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창의적 발상과 해법을 이끌어내 인류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영국의 의학자 에드워드 제너는 왜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는지 묻는 대신 소나 양젖을 짜는 사람은 어째서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지 질문을 던져 천연두 백신을 발견하게 된다. 포드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는 어떻게 노동자를 공장 곳곳의 일감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킬지 묻는 대신 어떻게 일감이 노동자에게 다가오게 할지 궁리하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떠올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게 해야 물가로 사람들을 데려갈지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물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할지 고심하다 최초의 근대적 배관 시스템을 구상한다. 창의적 해결책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곳에 늘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면이나 대척점에 존재하는 경우 또한 많다.

앞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창의력과 발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뒤집은 질문은 미래를 헤쳐나갈 깨알 같은 힌트를 던진다.

앞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창의력과 발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뒤집은 질문은 미래를 헤쳐나갈 깨알 같은 힌트를 던진다. 20세기 최고의 창의적 인물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의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문제의 해결책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 동일한 이해력 수준에선 절대 나오지 않는다." IBK



writer_ 김광희
협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도쿄 아시아대학(Asia Univ.) 경영학 박사, 창의력계발연구원 원장. 〈창의력에 미쳐라〉, 〈미친 발상법〉, 〈창의력은 밥이다〉 등 저자.

(주)현성바이탈 김범준 회장

연구 개발로 건강 수명 100세의 꿈을 실현한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장수가 꼭 축복받을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건강 수명 100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에 나선 헬스케어 전문 기업 (주)현성바이탈 김범준 회장을 만나 기업 경영의 가치에 대해 들어보았다.

하나의 계기로 생각의 씨앗이 움트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9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새로 등장한 헬스케어 전문 기업 '현성바이탈'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2006년 설립된 현성바이탈은 창사 10년 만인 2015년 4월 코넥스에 상장했고, 이듬해 12월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현성바이탈은 창사 초기부터 독특한 사업 아이템으로 화제를 모은 기업이다. 현성바이탈의 시가총액은 코스닥에 상장하기 1년여 전인 2015년 7월에 이미 3,0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창업자 김범준 회장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건 아니었다. 1970년대, 32세에 육군 대위로 전역한 김범준 회장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 세계 56개국에 유통되는 백과사전이었는데, 세일즈 매니저로 진급한 다음에는 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워낙 좋아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에 스카우트되었습니다. H제약과 K제약에서 건강식품 사업부를 오랫동안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6년 6개월간 수발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중풍을 맞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린 3년 6개월을 합해 10년간 부모님을 간병했습니다. 대형 제약 회사 전무였으니 좋다는 약은 대부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풍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게도 중풍과

Company History

- 2006 (주)현성랜드로 창업, 남원에 공장 설립
- 2010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2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 2013 (주)현성바이탈로 사명 변경
- 20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산업발전부문) 수상
- 2014 창조경영인 대상 수상
- 2014 생명과학연구원 설립
- 2015 식약처 동물실험 시설 등록
- 2016 지바쿠아 복합수소수기 출시
- 2016 코스닥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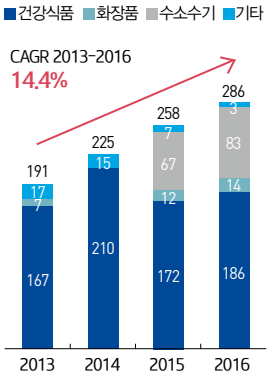


치매, 파킨슨병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키우니 가족과 이웃,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똑같은 현대병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범준 회장은 질병을 '옛날병'과 '현대병'으로 나눈다. 옛날병은 세균으로 감염되는 질병인데, 페니실린을 개발한 이후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대병은 옛날엔 없던 질병입니다. 저는 현대병의 원인을 영양소 불균형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현대병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입니다. 이때 정미소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쌀겨가 붙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쌀은 현미와 백미로 나뉩니다. 정미소에서 쌀을 심하게 도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선 부자들 중심으로 백미를 먹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에 없던 질병으로 괴로워하면서 '부자병'이란 말이 생겼고, 1970년대 이후 백미가 일반인에게 퍼지면서 '성인병'이나 '문화병' 같은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현미에서 떼어낸 쌀겨는 천연 비타민입니다. 천연 비타민을 제거하고 탄수화물만 섭취하니 영양소 불균형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현대병이 생겨난 겁니다."

최근 4년간 (주)현성바이탈의 매출액 추이



단위 : 억 원
자료 : K-IFRS 연결 재무제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천연 비타민을 개발하다

대형 제약 회사의 건강식품사업부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쌓아온 경력과 꾸준한 연구 결과, 그는 자신의 가설에 확신을 품었다. 이를 토대로 김범준 회장은 가정용 현미 도정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다.



남원에 위치한 (주)현성바이탈 공장.





(주)현성바이탈은 중금속 분석기, 고압 멸균기 등 고가 장비와 동물실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인 국가 R&D를 포함,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 개발과 영업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인사와 회계 등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두 번의 실패 끝에 그는 아내인 신지윤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현성바이탈이 설립되었다. 현미의 천연 비타민을 살린 균형생식환의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든 균형생식환의 모양이 멋없고, 맛도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타협할 순 없습니다. 맛을 내려면 감미료를 넣고, 예쁘게 만들려면 색소를 넣고, 모양을 다듬고 싶으면 '부용제'를 섞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100% 천연 재료로만 천연 비타민을 생산하는 기업은 현성바이탈뿐일 겁니다."

김범준 회장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2007년 19억 원이던 현성바이탈의 매출은 이듬해인 2008년에는 4배가 넘는 83억 원으로 급등했다. 그 후에도 매출은 225억 원(2014), 258억 원(2015), 286억 원(2016)으로 매년 신장했다.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로 쌓은 제품력

현성바이탈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실속 경영과 과감한 연구 개발이다. 김범준 회장의 경영 참여 요구에 신지윤 대표는 조건을 달았다. 무차입 경영이 그것이었다. 빚을 지고 몸집을 불리면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속 경영에는 빚 없이 능력만큼만 자본금을

숫자로 본 (주)현성바이탈

205g
휴대용 수소수기의 무게

12단계
휴대용 수소수기의 제조 공정 수

23.16%
수소수기의 연간 매출 성장률

105명
직원 수

6,000평
남원 공장의 규모



대형 제약 회사의 건강식품 사업부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경력과 실력을 쌓아온 김범준 회장은 실속 경영을 통해 (주)현성바이탈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늘려가는 무차입 경영 외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었다.

"현성바이탈도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저희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래처는 규모가 더 작아요. 저희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자본을 회수하기까지 2~3개월 걸리는데, 영세 업체에 6개월짜리 어음을 끊는 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차게 내실을 다져가는 실속 경영은 곧 윤리 경영이기도 했고, 더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는 비결이 되기도 했다.

꾸준한 연구 개발도 현성바이탈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별도의 연구 개발 시설을 설립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김범준 회장의 제약 회사 시절 경험과 국내외 연구 개발 논문 등 간접 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사업이 자리를 잡자마자 현성바이탈은 연구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개시했다.

균형생식환 이후 현성바이탈은 양파, 마늘, 도라지, 뽕나무, 산수유 추출액을 배합한 액상 차 '황찬고'를 개발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정부 기관이나 산학 협력 체제를 갖춘 대학에 각종 시험을 의뢰했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 '황찬고의 병원성 세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6종)에 대한 생육 저해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과에서 '황찬고의 슈퍼박테리아 항균성 검사 결과'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서 '황찬고의 항바이러스 효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식약처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인받은 '현성바이탈 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로 봉직한 노재열 박사가 연구소장직을 맡았다. 상주 인원은 동물 임상 실험 담당자를 포함한 석·박사 7인이다. 김 회장이 연구 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적극적인 연구 개발은 또 하나의 효자 상품을 낳았다. 수소수기인 '지바쿠아'가 그 주인공이다. 김범준 회장은 5년 전 일본에서 수소수를 처음 접하고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학교 부총장인 정명희 박사의 조언을 받아 수소수기 개발에 성공했다.

현성바이탈에 따르면 일본의 수소수기 시장은 3,000억 원 규모로 매년 20% 정도씩 성장하고 있다. 김범준 회장은 우리나라의 정수기 시장을 수소수기 시장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30년 전에는 물을 사 먹거나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물을 사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수기가 없는 집이 드물어졌습니다. 수소수기도 지금은 생소하지만 대세가 될 겁니다."

지바쿠아는 출시 첫해에 6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휴대용 모델까지 출시되면서 2016년 수소수기 매출은 83억 원으로 상승했다. 천연 건강식품에 대한 열정과 과감한 연구개발로 11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현성바이탈이 수소수기의 모멘텀으로 다시 얼마나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나갈지 주목된다. IBK



(주)현성바이탈이 2016년 출시한 휴대용 수소수기 '지바쿠아 JV-300'.

editor_이중한
photo_강건호 pious studio

Points to Success

한자로 보는 김범준 회장의 리더십 3

1 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제자에게 공자는 하나의 글자를 제시했다. '참 성(誠)'이었다. 세상에 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성(精誠)과 성실(誠實)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다.

2 本立道生

본립도생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발언으로, '근본이 바르게 서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라는 뜻이다. 기본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당장의 성취에 일희일비하기보단 기본의 정립에 집중해야 한다.

3 信

공자는 '믿을 신(信)'을 강조했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내세울 만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의리 또는 믿음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본 틀이다.

김범준 회장이 말하는 경영자의 자세 3

1 경영자는 꼭짓점이다

피라미드 구조의 맨 위 꼭짓점이 아니라 바닥을 향한 우산의 꼭짓점이어야 한다. 경영자가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할 때에만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

2 사람을 소중히 한다

신중하게 고민해 직원을 고용했다면 함부로 사람을 내보내거나 해고하지 말아야 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교육을 시키면 된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3 직원이 주인이다

개개인의 기본 자질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능력은 회사가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직원을 회사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들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킨다.

기업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경영 이슈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에는 사이클이 있다.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눈앞의 사안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근시안적 대책에서 벗어나야

기업 활동은 창업에서 시작해 성장-안정 또는 성숙-쇠퇴라는 라이프사이클을 보인다. 라이프사이클 내에서 국면 전환(예를 들어 창업 이후 성장 단계로 진입)을 맞이할 때마다 경영자들은 다양한 경영 이슈에 직면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해보니 대부분의 기업이 이슈가 발생하면 최소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한 이슈만 즉각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향후 기업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이슈까지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대책이 될 뿐이다. 당장 눈앞의 이슈만 해결하기보다는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상되는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❶ 창업 초기 단계

창업 단계에서 기업 경영자는 매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자 한다. 이때는 매출과 이익 규모가 작아 세 부담에 대한 고민 정도는 낮고, 관리 직원이 충분하지 않아 회계장부 기록, 제품 원가와 수익성 분석 등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❷ 성장 단계

성장 단계에서는 매출 성장으로 이익 규모가 커지므로 가장 먼저 절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법인 전환은 크게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전환과 그렇지 않은 법인 전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전환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나, 전환 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경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세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개인 소유로 하고, 이외 사업 자산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다시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을 했다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 전환은 업력을 인정받지 못해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금융 기관에서 대출 시 이자율 등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장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원가 등 수익성 관리에서 비롯된다. 목표하는 매출액과 전사 차원의 이익을 달성하더라도 이익을 창출하는 제품 또는 고객사, 손실이 발생하는 제품 또는 고객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별, 고객별 원가와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회사 전체적 관점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성장 단계에서는 손실을 유발하는 제품과 고객사를 분석해 합리적인 매출 단가 결정 또는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이익 향상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품목별 원가 계산과 수익성 분석 프로세스 수립을 필요로 한다.

❸ 안정 또는 성숙 단계

안정 또는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경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때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해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용 이후에도 7년 또는 10년 장기간 사후관리 요건에 부합해야 가능하므로 활용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앞서 성장 단계에서 가업승계를 대비하지 않고 '조세 지원을 적용받지 못하는 법인 전환'을 한 기업이 업력을 인정받지 못해 가업승계를 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 이유다. 안정 또는 성숙 단계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 또는 시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M&A도 고려할 수 있다. M&A는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지분 인수에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매도자 측면에서 지분 양도에 따른 높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합병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합병을 활용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듯 경영자는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슈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에 발생하는 이슈의 해결 방안도 달라진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슈만 해결하기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와 연관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회사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IBK



writer_ 장지성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세무회계컨설팅팀 수석회계사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프로젝트'에서 회계·재무 컨설팅, M&A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은 알고 가자

종합소득신고의 달, 5월이다. 법인 대표자들의 경우, 올해 초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작년 한 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다시 5월(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어떤 소득을 신고하나?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최저 6%에서 38%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❶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이자·배당소득뿐 아니라 법인의 주주로서 수령한 배당금, 법인이나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의 2천만 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 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과세 소득이거나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종결되는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간 금융소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❷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입 금액 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신고대상이다. 수입 금액은 임대료뿐 아니라 전세금 및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제외한 관리비 수입이 포함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데, 국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세대 단위). 또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2018년 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❸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모두 신고대상이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사적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에 불입한 원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으로, 이 중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❹ 기타 소득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양도, 사례금, 강연료 등이 대표적이다. 동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에 대해 브리핑하는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은?

현행 누진세율제도하에서는 소득이 여러 기간 동안 발생하고,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적다. 따라서 소득의 발생 시기를 조정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소득을 상대적으로 소득규모가 적은 가족에게 분산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세 절감을 꾀할 수 있다. 또 경비를 인정받는 사업소득의 경우 효율적인 경비 처리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

금융소득의 경우, 평소 금융 상품의 만기일을 조정해 소득의 발생 시기를 분산하거나 비과세·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금융 상품을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법을 통해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배당소득의 경우 주식 배당 시기를,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지급약정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별 소득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 자녀 및 손주의 경우 수증인별로 각각 10년간 5천만 원(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수입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절세의 가장 기초는 지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비 항목이 많지 않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어떻게 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2015년 임대료 수입 합계가 4,800만 원에 미달한다면,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낮아 소득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와 같이 사업상 경비가 어느 정도 있다면 경비율을 사용한 신고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여볼 수 있다. 그 밖에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분산함으로써 개인별 임대소득 규모를 줄여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소득세 절감뿐 아니라 향후 해당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절감과 상속세 및 증여세 절감에도 효율적일 수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단, 명의 이전 부동산 가격이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됨에 유의해야 한다. IBK

기타 신고 시 주의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 한 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취득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부동산 등 투자명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기존과 달리 해외 부동산 등 투자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동산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 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writer_ 이정미
IBK기업은행 WM사업부
공인회계사
중소기업 CEO를 비롯한 VIP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 전문가다.

근로자 퇴직 후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사나 개인이나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 관계 종료 후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정산해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에 대해 청산 의무를 부담하며, 기한 내 이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사건 대부분이 금품 청산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 및 근로계약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주휴 수당, 연차휴가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금품 청산 항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인지한 후 금액을 산정해 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 시 청산함으로써 향후 금품 청산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 기한 내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잘못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한과 신고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 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과 종료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 시 상실일과 상실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향후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임금의 결정·지급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성희롱 예방 교육에

근로자 퇴직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세 가지

1. **금품 청산**
   퇴직금 외 주휴 수당, 연차휴가 수당, 시간 외 근로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포함
2. **4대 보험 상실 신고**
   근로관계 종료일과 종료 사유 명확히 확인
3. **근로계약 중요 서류 보존**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임금의 결정·지급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서류 등과 사용증명서 발급 후 3년간 보존

관한 서류 등)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앞에 명시한 금품 청산 및 4대 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서류 보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다. 사업장에서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가운데 퇴직 근로자와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곤란하고, 분쟁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 후에도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중요 서류에 대해 반드시 보존 기간을 준수해 보관함으로써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분쟁과 사업주의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IBK

근로계약 해지 관련 Q&A

회사는 물론 개인 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확인 사항.

Q. 퇴직자 혹은 퇴직 예정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할까 걱정이 됩니다. 정보 유출 예방법이 있을까요?

A. 고용주 입장에서는 영업 정보나 기술 등이 곧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 시 영업기밀유지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서약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영업기밀 유지 기간은 2년 범위 내로 보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므로 기업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Q. 개인 정보 문제가 있는데, 퇴사한 직원의 인적 사항을 관리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39조와 제42조에 의거해 사용증명서 및 중요 서류에 대해 보존 기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사정으로 3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퇴직한 후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만한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 청산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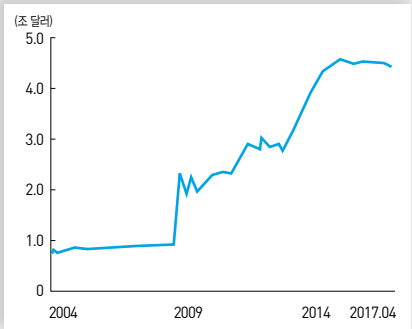
writer_ 이관수
대유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이자
국선노무사, 서울시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다.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국가별 경제 동향

미국

연준 총자산



자료 : 연방준비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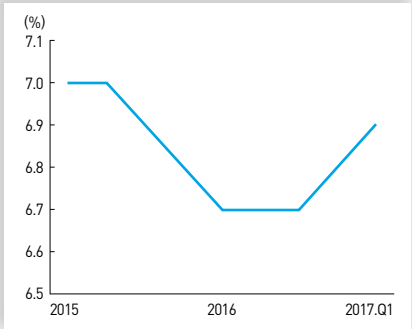
경기회복세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은 보유자산 재투자 중단 시사

3월 주요 경제 지표인 생산(1.5%), 소매판매(5.2%), 소비자물가(2.4%) 등은 전년 대비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지난 1, 2월 20만 명을 상회했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이상 저온 현상과 폭설로 유통업·건설업에서 고용이 줄며 9만 8,000명 증가에 그쳤다.

한편 지난 4월 5일 연준은 3월 FOMC 의사록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만기 도래 채권 재투자를 중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국채를 대량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온 연준이 새로운 통화 정책 단계로 돌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채 및 MBS 재투자를 전면 중단할 경우 2020년 연준 보유자산은 약 2조 5,00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성장률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4분기 경제성장률 6.9% 기록하며 경기회복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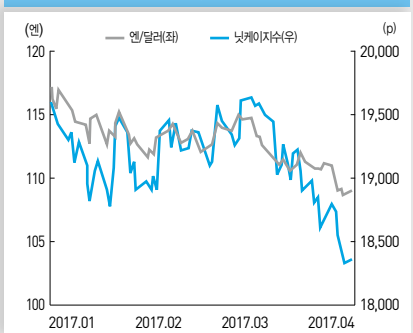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완연하다. 구조 개혁 가운데 성장 둔화를 전망했으나, 소비가 성장을 견인(성장기여율 77.2%)하며 2분기 연속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작년 말 종료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최근 전기차 보조금 혜택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자동차 판매도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

경기 과열 속, 부동산 거품 우려는 여전

소비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이 살아나고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중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 과열 속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부동산 관련 투자도 증가 폭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거품 우려는 여전히 높다.

일본

주가 및 환율



자료 :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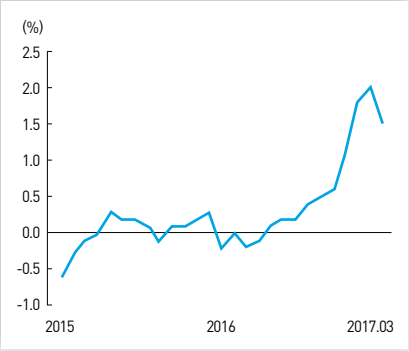
최근 주가와 환율이 동반 하락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성, 북핵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본 주식시장 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이유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수요가 증가해 엔/달러 환율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 하락으로 토요타 등 자동차업계 긴장

토요타는 2018년 영업이익을 올해 대비 20% 상승한 2조 4,000억 엔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토요타의 영업이익은 달러당 1엔 하락 시, 영업이익이 400억 엔씩 축소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으며, 최근처럼 엔/달러가 110엔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경우, 영업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유로 통계청

전년 대비 생산, 소비 증가로 개선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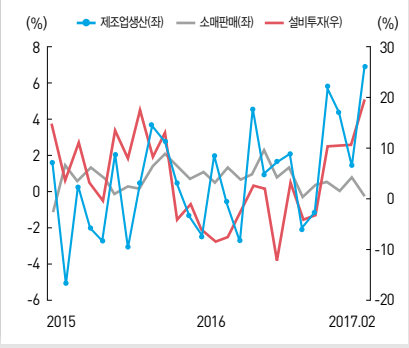
2월 산업생산은 중간재와 자본재, 에너지 생산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2%를 기록하며 양호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에너지 생산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예상치(1.9%)를 하회했다. 2월 소매판매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류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한편 3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둔화로 전년 동월 대비 2월(2.0%)과 3월 예상치(1.8%)에 못 미치는 1.5%를 기록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전년 동월 대비 2월(0.9%)보다 감소한 0.7%를 기록했다.

프랑스, 르펜(반EU)과 마크롱(친EU)의 2차 결선 진출 확정

프랑스 1차 대선(4.23일) 결과, 기존 예상대로 르펜(반EU, 극우 성향)과 마크롱(친EU, 중도 성향)이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여론조사는 다가오는 결선(5.7일)에서 중도 성향 마크롱의 60% 압승을 전망하고 있어 유럽 금융 시장은 안도하고 있다.

유로존

산업생산



주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통계청

전년 대비 생산과 투자는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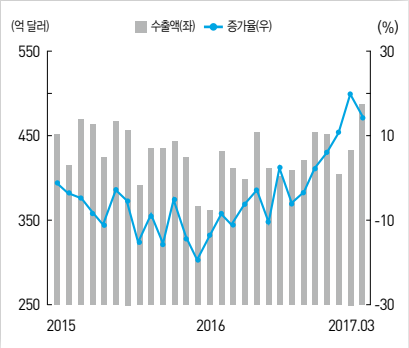
2월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21.3%), 자동차(11.9%) 등이 늘어 7.0%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25.6%), 운송장비(5.8%) 투자가 늘어 19.5%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7.5%)가 늘어났지만 0.5% 증가에 그쳐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해외 시각도 긍정적이다.

*전망치('17.1월→4월, %) : 한국은행 2.5→2.6, KDI 2.4→2.6, 한국경제연구원 2.1→2.5, JP모건 2.4→2.5, 모건스탠리 2.3→2.4, 바클레이즈 2.3→2.5

정부 재정 조기 집행 목표 초과 달성을 통해 경기 회복에 일부 기여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1/4분기 목표인 87.4조 원(31.0%) 대비 1.8조 원(0.7%p)을 초과한 89.3조 원(31.7%)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성('17.2월, 22.6%)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지수('17.2월, 100.8)가 개선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도 나타났다.

수출



주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관세청

수출, 2014년 12월 이후 월간 최대 수출 실적(489억 달러)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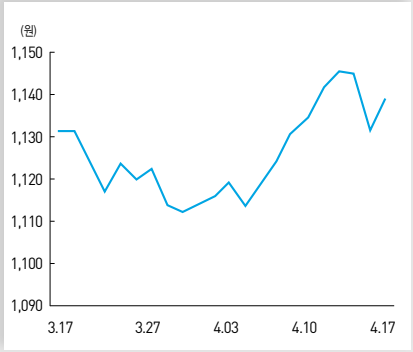
3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3.6%를 기록했고, 1/4분기* 수출도 2011년 3/4분기 이후 22분기 만에 최대 증가율인 14.9%(1,3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EU(-8.9%), 미국(-5.0%) 등은 줄었으나 중국(12.1%), 일본(17.7%) 등의 지역에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62.3%), 반도체(44.3%), 승용차(4.6%) 등 전반적으로 주력 품목이 증가했다. 3월 수입도 2014년 9월 이후 30개월 만에 5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27.7%를 기록했다. 이는 자본재(반도체 제조용 장비 185.1%↑, 주력 산업의 선제적 투자)와 중간재·소비재(국내 소비 회복 의미)의 수입 증가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회복의 시그널로 보인다.

*품목별 수입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 %) : 원자재 40.3, 자본재 19.0, 소비재 13.7

한국

환율 전망

원/달러 환율 동향



주 : 매매 기준율 **자료** :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은 3월까지 하락을 지속하다 북한 리스크 등으로 반등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주식 자금이 큰 폭 유입되고 월말·분기 말 네고 물량 유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 하락하며 3월 말 연저점을 경신했다(3.29일 1,112.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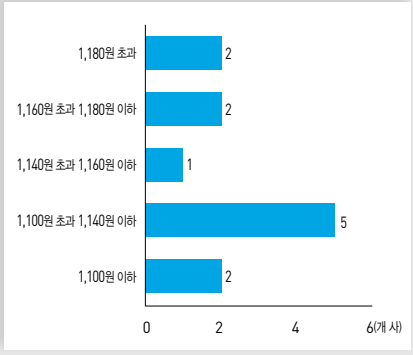
※3월 외국인 증권 투자 : 총 5조 9,000억 원 순유입(상장 주식 3조 3,000억 원, 상장 채권 2조 6,000억 원)

다만, 4월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저점 인식에 따른 달러 매입 증가, 미국의 FOMC 의사록에서 자산 축소 시사 발언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3월 말 대비 2.45% 상승했다(4.20일 기준 1,139.80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가능성

북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힘든 가운데 15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면서 당분간 원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IB 환율 전망



주 : 2017년 2/4분기 말 **자료** : 블룸버그

2017년 2/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149원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2017년 2/4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149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전망치인 1,173원보다 하락한 모습이다. 블룸버그에서 실시하는 환율 전망에 응답한 주요 IB 12개 사의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2/4분기 말 원/달러 환율을 1,100원 초과 1,140원 이하로 전망한 IB가 5개 사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최저 값은 1,103원, 최고 값은 1,19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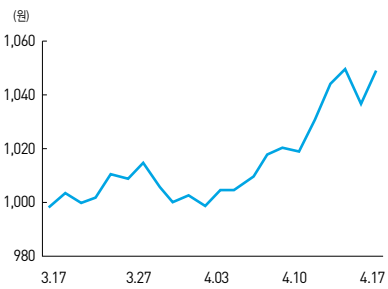
※환율 전망 응답 시기 : '17.4.1~4.17

2017년 3/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161원

2017년 3/4분기 말 환율에 대해 주요 IB들은 1,161원을 전망했다. 환율 전망치의 최저 값은 1,080원, 최고 값은 1,21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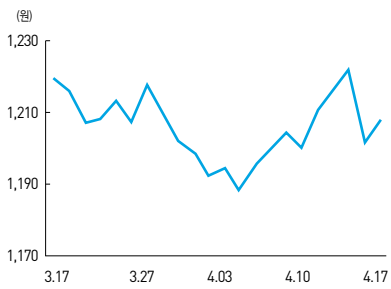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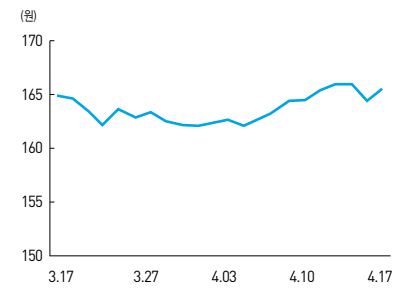
주 :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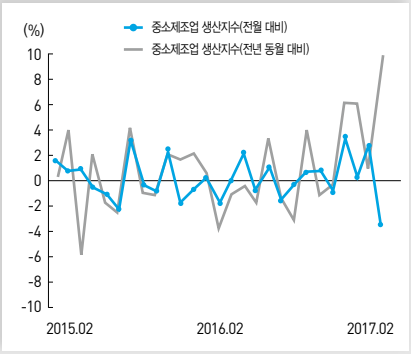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주 : 매매 기준율 **자료** : 한국은행

중소제조업 동향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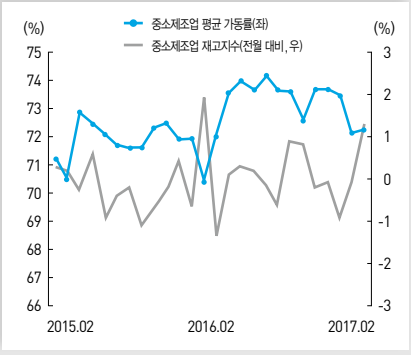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17년 2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기저 효과 및 반도체 생산 조정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3.4% 감소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조업 일수 증가 등으로 13.7%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컴퓨터(10.1%), 비금속광물(1.0%) 등에서 증가했지만, 반도체(-11.5%), 자동차(-6.1%)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계장비(21.3%), 자동차(11.9%)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12.3%), 영상·음향기기(-25.8%)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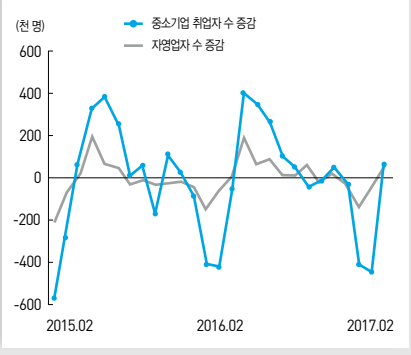
2017년 2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소기업(5~49인)에서 0.3%p 상승했으나, 중기업(50~299인)에서 0.2%p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전월 대비 0.1%p 상승한 72.3%로 나타났다.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17년 2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1차금속(4.7%), 자동차(3.7%) 등에서 증가했으나, 화학제품(-2.6%), 전자부품(-5.5%)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 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주 : 전월 대비 자료 : 통계청

취업자 수, 전월 대비 증가

2017년 2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6만 4,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4만 3,000명이 증가했으며,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전월 대비 2만 1,000명이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는 2,333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월 대비 증가

2017년 2월 자영업자 수는 전월 대비 4만 5,000명이 증가해 552만 1,00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살아나는가?

최근 정부가 국내 경제 상황 기조를 '다소 부진'에서 '회복 조짐'으로 전환했다. 한국은행 역시 4월 13일에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발표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표 자체가 호전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최근의 조짐이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주요국의 실물 지표가 2017년 들어 일부 호전되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IMF는 미국 등 주요국의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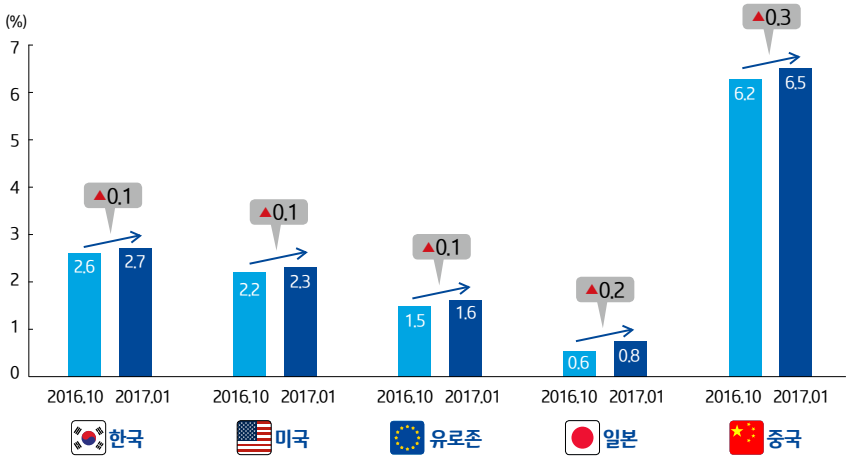
지난 3월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근거로 일곱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둘째로 중국의 과잉 생산과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 완화, 셋째로 일본 기업 지출이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으며, 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 점도 지목했다. 또 유로존의 경제심리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한 점, 대만 제조업 PMI 지수가 10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한 점과 러시아·브라질 등 신흥국 경기 개선을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근거

1. 미국 기준금리 인상
2. 중국의 과잉 생산 및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 완화
3. 일본 기업 지출 증가
4. 한국 수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 기록
5. 유로존 경제심리지수 7개월 연속 상승
6. 대만 제조업 PMI 지수 10개월 연속 기준치 상회
7. 러시아·브라질 등 신흥국 경기 개선

자료 : 이코노미스트

IMF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지난 1월 우리나라 수출은 2013년 1월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글로벌 교역 증가는 대부분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중국의 공급 개혁에 따른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생산 감축과 OPEC의 감산 합의, 그리고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경기 흐름도 회복세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 역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점차 회복되는 듯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수출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수출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유가 상승 등으로 2016년 1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했고, 2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두드러진다.

최근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는 업종이 경기 전반에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기에는 힘든 구조로 고착화된 한국 경제 상황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생산을 들 수 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하 역시 확대되면서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업황 실적 BSI는 여전히 100 이하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세를 보여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기업이 적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근거는 설비투자다. 설비투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IT 부문의 투자 확대 등으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BSI 상승에 따른 기업 심리 개선과 설비투자 조정 압력 증가도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제조업 경기도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생산·출하·재고 모두 증가했으며, 신규 수주와 업황 전망 BSI도 점진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KOSPI는 2017년 들어 2,00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는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해외의 시각도 긍정적인 편이다.

4월 13일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개선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새롭게 평가하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2017년 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했던 몇몇 연구소도 조정 중이다.

과연 경제 흐름이 회복세로 이어질까?

하지만 최근의 지표 호조가 국내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듯 보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저 효과'다. 생산과 수출, 설비투자 등이 실제 증가 규모 대비 과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무려 66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던 2017년 2월의 수출액(432억 달러)은 막상 지난 5년 동안의 월평균 수출액(45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5년 중 2년은 한국 수출 역사상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감안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 효과'다.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국내 생산과 수출 통계는 달러 강세와 유가를 포함한 수출 물가 상승 등에 기인한다. 문제는 가격이 상승한 데는 수요 확대보다 중국의 공급 개혁과 OPEC의 감산 합의 등 대외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조업 가동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최근의 수출과 생산 증가가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석유화학과 반도체는 유가와 반도체 가격 단가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네 번째 이유는 설비투자 확대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설비투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시점에 늘어난다. 향후 2017년

국내 경기회복세의 불안 요인

1. **기저 효과**
   생산과 수출, 설비투자 등이 실제 증가 규모 대비 과장
2. **가격 효과**
   수요 확대보다 대외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큼
3. **수출과 생산의 편중**
   수출과 생산 증가가 석유화학과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편중
4. **애매모호한 설비투자 확대**
   창업 등 단순 통계에 의한 투자 확대일 수도

1분기 시설 자금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2016년 말까지 시설 자금 증가는 크게 둔화되었다. 시설 자금 둔화는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했거나, 재작년까지 급증하던 임대업 수요가 감소했거나 경락률이 극히 낮은,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계 등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신설 법인과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창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다. 즉 단순 설비투자 통계 결과를 보고, 투자 확대를 확신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2017년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9,000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문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IMF 이후, 양호한 글로벌 경기에 힘입어 수출을 통해 단기간 내에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글로벌 경기 상황하에서는 국내 역시 부진이 지속되며 '좋을 때는 함께 좋지만, 나쁠 때는 더 나쁜' 높은 대외 의존도의 문제점을 입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저축 대비 투자 비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부족해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도 힘들며, 정부마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등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워 경기의 선순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불안 요인이 많은 국내 경기, 신중하게 주시해야

수출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가격과 기저 효과는 하반기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지표도 당분간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대외 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에 기댄 지표상 회복은 가격 변동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많다. 특히 최근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및 석유화학 업종이 경기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특히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기에는 힘든 구조로 고착화된 한국 경제 상황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최근의 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신중한 시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내수 회복을 위한 체질 개선과 가계의 근본적인 소득 기반 마련이 시급할 듯하다. IBK




writer_ 이민재·송주경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연구위원·선임연구원
국내외 경제·금융 산업 연구, 경제 동향 조사 및 전망 등을 담당하고 있다.

38
중소기업
CEO REPORT

생태계 기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05

체계적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KT&울랄라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원을 더 많이 가진 대기업과 자신의 특화된 자원을 제공해 전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해온 KT와 울랄라랩의 상생협력 노력을 소개한다.

KT와 울랄라랩

KT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 통신 서비스 회사로 아시아 최초의 첨단 인터넷망과 위성 통신망 구축, 대한민국 최초 통신위성 발사 등을 통해 전 국민이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해온 기업이다. KT는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 시장에서 미래 기술 선도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된 서비스 가치 제공을 위해서는 중소 협력사와 벤처·스타트업과의 긴밀한 상생협력이 필수 요소임을 인지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협력사가 존중받는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울랄라랩은 IoT 디바이스 위콘(WICON)을 각종 상용 센서와 융합해 사람, 사물, 동물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을 제공하며,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ICT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각종 센서는 대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모으는 데 필수적인 기술 요소이고,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은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울랄라랩은 자신들의 기존 기술에 KT의 지원을 더해 스마트공장 플랫폼 시장에 진출해 고효율의 '윔팩토리(WimFactory)'를 개발했다. 스마트공장은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기까지의 공장 내 모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제어하는 공장을 말한다. 울랄라랩의 '윔팩토리'는 일반 스마트공장의 사례에서처럼 제조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로 공장 현황, 설비 현황, 생산 현황 등을 실

KT의 지원을 통한 울랄라랩의 성공 사례

KT
-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벤처·스타트업 선발 및 육성 프로그램 운용

컨설팅 지원(BM 전환, BM 고도화) 입주 지원, 해외 진출 기회 제공 등

위콘 기술 개발 및 저비용/고효율 솔루션 개발

울랄라랩
- 위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시간으로 확인하고 오작동이 발생하면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공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율적인 서비스로 각광받는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울랄라랩은 2016년 상반기부터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플랫폼을 수출함으로써 스마트공장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울랄라랩은 KT를 만나기 이전에는 반려동물 생활 분석 서비스인 '윔펫'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반려동물 생활 분석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KT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한 'K-Champ 벤처 창업 공모전'에서 1기 K-Champ에 선발되면서 상황이 크게 호전되었다. KT의 K-Champ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KT의 컨설팅 지원 속에서 스마트공장 솔루션인 '윔팩토리'로 사업 모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사업화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었다. 울랄라랩은 KT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위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또 KT의 해외 전시회 동반 참가, 윔팩토리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K-Champ 센터 입주 등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나갔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얻은 SW 기업의 성장

울랄라랩은 2016년 1~3월 KT의 컨설팅 전담 부서인 NCG의 기업 역량 진단과 서비스 진단 등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IoT 플랫폼 '윔팩토리'



자료 : 울랄라랩 홈페이지

윔팩토리 플랫폼

울랄라랩의 '윔팩토리'는 물류와 공정 등 전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으로 부담이 큰 기존의 스마트공장 설비 대신 IoT 디바이스 위콘을 부착해 비용과 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플랫폼 모델이다. 공장 현황, 설비 현황, 생산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작동이 발생하면 알림을 제공한다.



울랄라랩 홈페이지.

이를 통해 울랄라랩이 보유하지 못한 시장 분석, 가격 정책 등의 사업 역량을 보완하고, 주력 사업 모델인 윔팩토리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진행했다. KT NCG는 울랄라랩에 대해 스마트공장 플랫폼 가격 정책 수립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별 비용 산출 세부 분석, 타사 가격 정책 분석, 벤치마킹 모델 선정과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 윔팩토리 가격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했다.

또 시장에서 윔팩토리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체를 찾아 인터뷰하고,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윔팩토리 서비스 가이드를 수립하기도 했다. 또 KT NCG는 울랄라랩의 주요 사업 모델인 윔팩토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 고객으로 하는 B2B 사업 모델인 점을 고려해 마케팅과 영업, 매출 활동 등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을 수행했다. 그뿐 아니라 대기업 납품 벤더사와 하청업체 등의 수요처 분석을 통해 전국 산업 단지 공단 내 중요 표적 기업 설정 등의 B2B 비즈니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에 적용 가능한 고객 만족 경영 기법, 전국 영업망 구축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울랄라랩이 보유한 기술력과 KT의 사업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빠르게 안정시켜나갔다.

이와 동시에 KT는 'MWC Shanghai 2015'(상하이), 'MWC 2016'(스페인 바르셀로나)에 KT와 울랄라랩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아시아와 유럽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윔팩토리를 알림으로써 울랄라랩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울랄라랩은 2016년 윔팩토리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나이키 운동화 제조 공장에 도입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고, 독일·프랑스·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는 등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또 MWC 등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쌓아 올린 지명도와 중국·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 경험 등을 통해 울랄라랩은 중국 광센서 전문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중국 상하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울랄라랩은 해외에서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부품 생산 라인에 윔팩토리를 도입하는 기회를 얻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커넥터, 하네스 등에 적용하고 있다. 또 국내 대학교들의 스마트공장 기자재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KT의 3불(不) 3행(行) 정책

KT는 공급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가치 사슬 전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3불(不)과 3행(行)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3불(不) 정책

중소기업과 경쟁하지 않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아이디어 가로채지 않기, 그리고 중소기업 자원 낭비하지 않기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

3행(行) 정책

용역이 아닌 가치 구매, SW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그리고 글로벌 SW 시장 진출 기회 제공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순환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SW 지원을 통해 얻은 대기업의 성과

K-Champ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울랄라랩을 지원한 KT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KT는 울랄라랩 같은 벤처, 스타트업과 중소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2014~2015년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KT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주도 사업에 파트너 기업들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KT와 울랄라랩의 성공 사례는 체계적인 컨설팅 시스템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의 성공적 사업 구축은 물론 업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사업 실패의 위기에 처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 울랄라랩이 KT라는 정보 통신 대기업을 만나 재도약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각광받은 배경에는 KT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상생협력이 있었다. 울랄라랩의 성공은 KT의 동반성장 모델이 사업 모델 컨설팅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부족한 부분인 경영 노하우, 시장 분석 능력 등을 체계적인 컨설팅 시스템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의 성공적 사업 구축을 돕고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원업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생태계 확장 차원의 동반성장 전략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화되고 다층화된 고객의 요구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원이 많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이러한 고객의 요구나 기술의 변화를 감당할 수는 없다. 핵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기술 기업의 연계 혹은 연대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형태의 시혜적 동반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서 생태계 확장 차원의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혁신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담당하고, 대기업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확장하고 사업화한다면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민첩성을 갖출 것이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자원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KT와 울랄라랩의 사례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스타트업의 기술이 결합된 대기업-스타트업 기업 간 선순환적 동반성장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사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 글로벌 진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IBK



writer_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스마트핀테크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비소베이션 :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략〉, 〈협동조합 성공과 실패의
비밀〉(공저) 등의 저자.

그럼에도 사랑하라, <오만과 편견>

2017년은 제인 오스틴 사후 200년이 되는 해다.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영국 작가이자 영향력 있는 고전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19세기 작품이지만, 21세기인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반어와 풍자의 수법이 탁월했던 제인 오스틴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보자.

19세기 영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변화를 그린 작품

"재산깨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좋아한다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첫 문장이다. 제인 오스틴 스스로도 "너무나 가볍고 밝고 반짝거려서 그늘이 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이 소설은 작가의 재기 발랄한 표현이 넘쳐난다. 소설은 이웃집으로 이사 온 빙리 씨를 사윗감으로 찍은 베넷 부인의 활약으로 시작된다.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가 가문을 이유로 언니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말에 오만한 인간으로 규정짓고, 다아시는 그런 엘리자베스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여긴다. 소설은 그런 두 인물의 오만과 편견을 중심으로 19세기 영국 사회를 속속들이 보여주며 해피엔딩을 향해 전개된다.

"제인 오스틴은 모든 작가들이 꿈꾸는 별과 같은 존재다."
-조앤 K. 롤링



작가 특유의 풍자적인 문체와 유머

딸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남자 집안의 재산을 꼼꼼히 살피는 부모의 모습은 현재의 우리를 보는 것 같다. 직업은 무엇인지, 연 수입은 얼마인지, 개인 마차는 있는

지, 하인은 몇 명인지 따지는 19세기 결혼관은 200년이 지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변호사나 군인, 해군 제독을 최고의 직업으로 간주했으나, 의사는 그다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 소설 속 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이 결혼하기까지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가 이 소설을 읽는 재미이기도 하지만, 19세기 영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변화, 그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 등을 엿볼 수 있다.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재산이 없는 아가씨에겐 오직 결혼만이 명예로운 생활 대책이었고, 결혼이 가져다줄 행복 여부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해도 결혼만이 가장 좋은 가난 예방책임이 분명했다."

결혼을 앞둔 여성에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던 19세기 영국에서는 여성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결혼이었다. 이 소설은 개인의 성격과 신분, 부와 계급 등에서 비롯된 인간의 오만과 그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이 지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스토리를 흥미롭게 이끌어간다. 제인 오스틴은 욕망과 부, 명예를 좇는 사람들과 그들의 허영을 작가 특유의 풍자적인 문체와 유머로 그려내고 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인기를 끌었던 〈오만과 편견〉.

오만한 男과 편견에 사로잡힌 女를 통한 주체성 찾기

"오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흔한 결함이야. 오만이란 실제로 아주 일반적이라는 것,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 실재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해.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긴 하지만 그 뜻이 달라. 허영심이 강하지 않더라도 오만할 수 있지. 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것과 더 관계되거든."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미덕을 기반으로 하는 이 소설은 오만한 남자와 편견에 사로잡힌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그러나 여자는 콧대 높은 남자의 자신감에 매료되고, 남자는 여자의 주체적인 진정성에 매혹되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

5월, 여기저기에서 청첩장이 날아오는 계절이다. 결혼을 앞둔 후배나 직원들이 주례나 조언 한마디를 부탁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제인 오스틴의 불후의 명작 〈오만과 편견〉을 다시 읽고 문득 떠오른 생각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IBK



writer_ 이현숙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팀장
〈사장의 인문학〉, 〈마흔, 두 번째 스무 살을 준비하다〉 저자.
매일 배우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은행원이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열린 '커넥트 W' 행사에서 선보인 화상 기기업체 '큐릭스'의 화상 기기. 휴대전화, 컴퓨터, TV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영상통화나 회의를 할 수 있다.

회의, 모바일을 입다

회의실에 갇힌 회의가 과연 능률을 높일 수 있을까? 열린 사고는 열린 회의에서 나온다.

회의 트렌드의 변화

전통 회의

- 오프라인상 회의 공간 필요
- 회의 구성원이 모여야 가능
- 90분을 넘나드는 회의
- 신경 써야 하는 자리 배치
- 프린트된 회의 자료 준비

*시공간의 제약

모바일 회의

- 모바일 앱이나 영상통화를 통한 회의
- 외근 직원도 회의 참석 가능
- 자료 송수신, 열람 등 실시간으로 전송
- 신속한 의사 결정

*시공간의 제약 없음

전통적인 효율적인 회의 기법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주의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아주 오래된 농담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인용되는 까닭은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요소를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지나치게 길거나 결론이 모호한 회의는 참석자들을 진 빠지게 한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기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회의 진행법만 다룬 단행본도 여러 권 출간되었다.

효율적인 회의 방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이렇다. 구체적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팀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보통 5~6명을 최적 인원으로 본다), 회의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찬반이 갈리는 주제에는 양 진영 사람들을 분리하기보단 섞어서 배치하는 게 좋고, 회의 자료는 6장 이내로 한다. 중요한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 실무자가 먼저 발언하도록 한다. 이런 노하우는 아주 오래전에 생겨났다. 그럼에도 회의의 효용성에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다. 그건 미숙한 회의 진행 탓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동시에 한 공간에 불러 모아야 하는 불편함도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회의 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모바일이 회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

먼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위챗 등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회의를 첫 번째 변화 양상으로 들 수 있다. 아예 기업 전용 통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도 한다. KT 비즈메카 등의 기업웨어는 회사 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전자결재와 모바일·웹 회의까지 지원한다. 과거에도 ICQ나 MSN 메신저, 네이트온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원격 회의를 진행한 사례가 많다. 하지만 온라인 회의는 안건이 단순하거나, 회의실 같은 공간이 부족할 때 제한된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료 송수신, 열람 등의 다양한 기능까지 지원하는 모바일 오피스는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하이브리드 회의도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풍속도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되, 외부 일정으로 현장에 없는 인원만 모바일 영상통화를 통해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회의를 포함한 모바일 회의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 업무 분장 등이 자연스럽게 문서화된다(영상통화의 하이브리드 회의에서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공수표 언사를 예방할 수 있다. 자료 파일을 즉시 송수신 가능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열린 회의가 열린 사고를 만든다

성능이 향상된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은 모든 국민이 휴대용 컴퓨터를 상시 휴대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인프라를 조성하며, '스마트워크'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왔다. 현재 화상회의(비디오 콘퍼런스)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시스코가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AWS)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아마존 차임(Amazon Chime)'을 선보이며 통합 커뮤니케이션(UC) 분야 핵심 제품인 화상회의 솔루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차임'은 윈도는 물론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고품질의 화상회의를 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변하면서 갇힌 공간에서 장시간 인내해야 하는 전통적 회의 스타일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난 모바일오피스뿐만 아니라 기업은 통근 버스 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회의나 샌드위치, 도시락을 곁들인 조찬 또는 오찬 반짝 회의로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을 고민하고 있다. 날이 좋으면 벚꽃이나 나무 그늘 아래, 혹은 인근 커피숍이나 스터디 공간을 찾기도 한다. 딱딱한 사무실의 짓누르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환경에 변화를 주면 브레인스토밍에도 유리하다. IBK



지난 2월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인 '아마존 차임(Chime)'을 발표했다.

editor_ 박경진

일의 주인이 되어야 일이 즐겁다

누구나 '즐겁게 일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일에 부담감을 갖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누구는 극복하고, 누구는 부담에 힘들어하며 번아웃(Burn Out)되어버린다. 일에 대한 부담, 무엇이 문제인가?

일에 대한 무지가 부담감 불러

일을 할 때, 부담감 때문에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 일에서 부담을 느끼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에 대한 무지(無知), 그리고 불가지(不可知) 때문이다. 업무를 요청한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정신적인 부담감이 커진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성과가 기본이다. 그 때문에 직장인에게 성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성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일할 것인지는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며 그 과정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일에 끌려다니며 괴로워할 것인가?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담 없이 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목표와 세부 전략 등을 세워야 한다.



일이 즐거워지는 기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하는 일마다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에 대한 부담감을 관리하며 그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

록 만든다. 철저하게 성과 목표 중심으로 일을 전개하면, 상사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고, 일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다. 또 자신이 의도한 대로 원하는 성과를 얻어냈을 때, 일은 즐거워진다. 일하는 과정을 즐거움으로 채우고 싶다면, 업무 활동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하는 프로세스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일을 즐기고 성과를 창출하며, 자신의 역량을 쌓는 방법은 한 가지다. 바로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❶ 일을 하기 전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하고 싶고 손쉬운 일이 아니라, 소속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정하고, 그 일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객관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성과 목표를 이루는 세부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는 '성과 목표 조감도'를 작성해본다.

❷ 성과 목표 달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부 타깃과 공략 방법을 결정한다

성과 목표 조감도의 구성 요소 중 통상적인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고정 요소'와 통상적인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방법도 바꾸고 투입해야 할 자원과 역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요소'를 분류해 이에 맞는 맞춤형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

❸ 3단계 커뮤니케이션으로 실행에 대한 불안감을 없앤다

일을 요청한 사람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소통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액션 플랜, 그리고 소요 일정을 수립해 코칭받고 소통하는 '스타팅 단계', 일을 시작하고 나서 공정률 50% 시점에서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고하는 '중간 진행 단계', 90% 이상 완성된 일을 가지고 리더와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확인 단계'를 통해, 실무자가 실행에 대해 확신해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다.

시장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야 회사가 생존할 수 있듯이, 직장인들도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기를 원하는, 상품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을 즐기고 성과를 창출하며, 자신의 역량을 쌓는 방법은 한 가지다. 바로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당당하게 일의 주인이 되려면 '성과 목표'와 '전략'을 움켜쥐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IBK



writer_ 류랑도
(주)더퍼포먼스 대표 컨설턴트
경영학 박사. 인사 조직 관리 분야를 전공했으며,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등 저자.

Art

봄날에 좋은 전시

그곳에 가면 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쉬운 봄날, 따뜻한 햇살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자.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1

자료 : 세종문화회관



2

1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천경자 화백은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화풍을 개척한 한국의 대표 여류 작가이며, 주로 꽃과 여인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꿈과 정한(情恨)을 주제로 일관된 작품 활동을 했으며, 작품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고독하고 몽환적이며 애틋한 눈빛의 여인은 작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곳곳에 흩어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영원히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1998년에 93점의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이 93점의 작품은 천경자 화백이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제작한 작품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개방 시간에는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자〉전을 언제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기간_ 2017년 12월 31일까지

2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백남준

백남준은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이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의 표현 범위를 확대한 세계적인 예술가다. 1960년대에는 독일 플럭서스 운동의 중심에 섰으며 실험적인 퍼포먼스와 전시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백남준은 오늘날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인 새로운 예술 선구자', '아주 특별한 진정한 천재이자 선견지명 있는 미래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는 백남준 작가의 〈호랑이는 살아 있다-월금과 첼로〉가 상설 전시되어 있다. 2000년 1월 1일 0시 정각 임진각 야외무대에서 공연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로 소개되어 세계 87개국에 위성 생방송된 작품으로, 2001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으로 이전되어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다. 2개의 오브제로 구성된 이 작품은 약 6m 높이의 대형 작품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대극장 공연 시 공연 1시간 전부터 공연 30분 후까지 관람 가능하다.

전시 기간_ 상시

3 환기미술관, 김환기

한국 추상미술의 제1세대로 불리는 김환기는 1930년대 후반부터 추상미술을 시도해 한국 모더니즘의 선구자 역할을 한 작가다. 1950년대까지는 산·강·달 등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했으며,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아름답게 조형화해 한국은 물론 현대미술의 중심지이던 파리와 뉴욕에서도 명성을 떨쳤다. 부암동에 위치한 환기미술관은 1992년 그의 아내 김향안 여사가 설립한 미술관으로, 작가의 예술 세계를 보존하고 연구·전시하는 기념적 성격을 띤다. 항상 김환기 작품 전시(별관, 기념관 등)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본관에서는 특별 기획전 〈허동화 : 충만〉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 기간_ 2017년 5월 7일까지(<허동화 : 충만>전)

자료 : 환기미술관



3



writer_ 김아림
세종문화회관 공연 기획·홍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기획, 홍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문화예술경영론을 가르치고 있다.

나른한 오후, 두뇌를 깨우는 팝

Music

천하장사도 도무지 배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춘곤증이 밀려오는 화창한 오후 3시. 이에 맞설 무기로 음악을 선택한다면 역시 누구나 친숙한 '아는' 노래가 제격이다.

1 Queen <Greatest Hits>

록 그룹으로서 퀸(Queen)만큼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대중성을 지닌 팀도 많지 않다.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한 지가 언젠데 그들의 이름은 거짓말처럼 아직도 현재형이며(공식적으로 아직 해체하지 않은 상태), 지치지도 않고 각종 모음집 앨범이나 미발표곡 같은 것들이 최근까지도 하나씩 등장하곤 한다. 외골수라기보다는 팔방미인 성향이었던 그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위적인 작곡부터 단순한 디스코 리듬까지 다 소화해냈고, 그 결과 매우 유연하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거기다 명창 머큐리의 속 시원한 가창력과 쇼맨십은 그들 노래에 최종적인 낙관을 찍는 모양새다. 〈Greatest Hits〉(1981)는 프레디 머큐리 사망 시점에 나온 〈Greatest Hits 2〉(1991)와 최종 마무리 격인 〈Greatest Hits 3〉(1999)와 함께 3부작 히트곡집의 첫머리가 되는 음반.

Point_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Don't Stop Me Now', 'Bohemian Rhapsody' 등 늘 재주문을 보장하는 황금 히트곡들을 줄줄이 담았다.

2 Pet Shop Boys <PopArt>

펫 샵 보이즈(Pet Shop Boys)는 지난해에도 16집 새 앨범을 내면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영국 출신의 팝 듀오다. 할아버지라 말해도 좋을 예순 줄의 나이에 이렇게 시종일관 젊은 음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경이롭다. 팀을 이루는 두 사람, 닐 테넌트와 크리스 로우는 팝의 단순한 정의에 맞게, 누가 들어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대중성의 스탠더드를 유지한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영국인 특유의 냉소와 아이러니를 워터마크처럼 심어놓는다. 제목부터 '팝아트'인 이 히트곡집은 2003년에 나왔다.

Point_ 'West End Girls', 'It's a Sin', 'Being Boring', 'New York City Boy', 그리고 지금도 종종 라디오에서 들리는 친숙한 'Go West'(빌리지 피플의 노래를 다시 부른 것)까지, 원한다면 약간의 신체 활동을 곁들여도 좋을 만큼 충분히 활력 넘치는 곡들이다.

3 Stevie Wonder <The Definitive Collection>

어떤 면에서는 앞의 둘을 가뿐히 능가하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다.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는 유아기에 실명하는 비극을 겪었지만, 하모니카·건반·노래 실력이 월등했던 덕분에 10대 시절에 전설의 흑인 레이블 모타운(Motown)에서 데뷔해 간판스타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이후 55년 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안 그의 발밑에는 무수한 히트곡이 쌓여갔다. '스티비 원더 히트곡집 결정판'이라 이름 붙인 이 앨범에는 'Signed, Sealed, Delivered I'm Yours', 'Higher Ground', 'Sir Duke', 'Part Time Lover', 그리고 자신의 딸이 태어났을 때의 감격을 노래한 'Isn't She Lovely'까지 템포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서정적인 노래가 많다는 데 새삼 감탄하게 된다.

Point_ 그루브와 감동이 모두 살아 있는 자작곡이 가득하다. 발매한 나라에 따라 수록곡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



1



2



3

writer_ 성문영
팝 칼럼니스트
음반 해설부터 가사 번역까지, 팝 음악에 관한 다양한 포맷의 글을 1992년부터 써오고 있다.

May 2017

05

이달의 행사·전시

sunday	monday	tuesday
	1	2
7	8	9
14	15	16
21	22	23
28	29	30



고양국제꽃박람회 2017

봄을 알리는 박람회. 1997년 처음 개최된 이후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국제꽃박람회에는 25개국 300여 개의 화훼 관련 기관, 단체, 업체가 참가해 각국의 화훼류와 화훼 신상품을 선보인다. 실내 전시와 야외 전시로 나뉜다.

info. 4.28(금)~5.14(일), 고양시 호수공원 일원
flower.or.kr

국제전기전력전시회

전기전력 산업, 스마트그리드, 발전 및 원자력 플랜트 산업, 중전기 산업을 융합한 전기전력 분야 전문 전시회. 전기전력 산업의 융합과 확산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산업 통상 연계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전시회와 수출 상담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info. 5.10(수)~12(금), 서울 코엑스(COEX)
www.electrickorea.org

제8회 부산국제기계대전

격년으로 열리는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에서는 최첨단 기계기술과 기계산업 발전상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1전시장에서는 기계기술전, 금형산업전, 플라스틱고무산업전, 2전시장에서는 공장자동화전, 로봇산업전, 스마트공장솔루션전 등으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된다. 약 3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다.

info. 5.24(수)~27(토), 부산 벡스코(BEXCO)
www.butech.or.kr



대구국제뷰티엑스포

화장품, 네일, 에스테틱, 보디 뷰티 등 최신 뷰티 트렌드를 알 수 있다. 다양한 뷰티 관련 품목의 전시 외 각종 부대 행사와 웨딩드레스·한복·메이크업 무료 체험 등이 가능하다.

info. 5.19(금)~21(일), 대구 엑스코(EXCO)
www.beautyexpo.kr

한국국제건설기계전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 전문 전시회인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 2017)'에서는 토공, 운반·하역, 도로·포장, 콘크리트, 특수 장비 등 건설기계와 관련된 신상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항타·항발기, 모바일크레인, 타워크레인, 고소 작업차, 콘크리트 펌프 등 대형 장비를 위한 옥외 전시장도 마련된다.

info. 5.24(수)~27(토), 일산 킨텍스(KINTEX)
www.conexkorea.org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3	4	5	6
고양국제꽃박람회 2017			
10	11	12	13
국제전기전력전시회			
17	18	19	20
		대구국제뷰티엑스포	
24	25	26	27
제8회 부산국제기계대전			
한국국제건설기계전			
월드IT쇼 & 안전보안산업대전			
	2017 제주Home인테리어박람회		
31			

월드IT쇼 & 안전보안산업대전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월드IT 쇼(World IT Show 2017)'와 대한민국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및 첨단 보안기술 종합 산업 박람회인 '안전보안산업대전(SAFER KOREA 2017)이 동시에 개최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VR/AR, 빅데이터 등 ICT와 관련된 기술과 최첨단 안전·보안 산업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info. 5.24(수)~27(토), 서울 코엑스(COEX)
worlditshow.co.kr/www.securitysafety.co.kr

2017 제주Home인테리어박람회



'2017 제주Home 인테리어박람회'에서는 원하는 재료로 가구를 제작하는 '홈 퍼니싱', 자신의 취향대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DIY(Do It Yourself)'까지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info. 5.25(목)~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www.jejuhomeinterior.com

● 그 외 주목할 만한 전시회

2017 한국음식관광박람회

2000년부터 시작된 박람회. 세계 속 한국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info. 5.3(수)~6(토), 서울 aT센터, www.kfkt.co.kr

2017 서울국제간편식·HMR전시회

시장성이 큰 인스턴트 제품, 도시락, 반찬 등 완전 조리 식품과 반조리 식품(HMR) 전문 전시회.

info. 5.10(수)~12(금), 서울 코엑스(COEX)
www.sihmrshow.com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아시아 3대 식품 전시회 중 하나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7)'.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와 국내 바이어 상담회도 개최된다.

info. 5.16(화)~19(금), 일산 킨텍스(KINTEX)
www.seoulfood.or.kr

2017 생활캠핑박람회

캠핑카, 텐트, 침낭, 주방 소품 등 캠핑과 관련된 최신 용품 전시회.

info. 5.18(목)~21(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lifecampingfair.com

계절의 여왕, 5월

5월을 나타내는 May는 열두 달 가운데 가장 짧은 영어 단어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달이기도 하지요. May의 어원은 두 가지 설로 나뉩니다.
먼저 그리스신화 속 풍요의 여신 '마이아(Maia)'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시인 오비드는 5월이 위대하고 거대하다는 뜻의
'마이누스(Mainus)'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건 행복의 뉘앙스를 가득 안고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도 계절의 여왕은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May는 가능성과 희락,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모든 이의 희망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등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을 보내실 때는 ①이름 ②회사명 ③주소 ④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는 방법

문자메시지 010-3446-8801 이메일 ibkceoreport@ibk.co.kr 카카오톡 아이디 CEOREPORT

카카오톡 '친구찾기' 탭에서 ID로 CEOREPORT를 검색하면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와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보내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는 IBK경제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research.ibk.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배로 쌓고, 3배로 즐겨라!

마일앤조이 카드

MILEnjoy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1~3 마일리지 적립**

해외 항공권·호텔·패키지 **할인**

공항라운지 **무료이용**

공항 교통 **무료이용**

KTX·SRT **10% 할인**



마일앤조이(대한항공)



마일앤조이(아시아나클럽)

▶ 발급대상 : 개인(본인 및 가족) ▶ 브랜드 및 연회비 : UnionPay 3만원(가족 2만원)

※ 카드 신청 전 서비스 제공조건 및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C1i-05012호 (2017.03.27 ~ 2018.03.26)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7-938호 (2017.03.16) CP1(1)

▶ 연체이자율(최저 연 19.0% ~ 최고 연 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개혁
Innovation
Bank of
Korea
나는
새롭다
은행을 벗어나자
금융이 있어야 할 곳은 고객의 옆이다
당신을 이롭게 금융을 혁신하다
Innovation Bank of Korea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창!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